

국어 영역(A형)

제 1 교시

성명

수험번호

1

[1~2]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지금부터 ‘범칙금에 대한 일수(日數)벌과금제 도입’을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수벌과금제는 법규 위반자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인데,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반대 측: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범칙금제는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그 만큼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수벌과금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경제력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잘못된 것 이상의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법 적용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수벌과금제의 도입에 반대합니다.

찬성 측: 앞서 말씀하신 범칙금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져야 하는 책임이 10이라고 할 때, 동일한 벌금을 부과하면 실제로 체감하는 책임의 무게는 당사자의 경제력에 따라 5가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경제력이 높은 사람들에게 벌금은 실질적인 형벌의 의미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방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책임을 느낄 수 있는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반대 측: 범칙금의 예방 효과 측면에서 볼 때,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게 낮은 벌금을 부과한다면 오히려 위반 행위가 더 증가하게 되지 않을까요? 또한 일수벌과금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개인의 경제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봉급생활자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요?

찬성 측: 개인의 경제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도 꽤 오래 됐고, 전산 시스템도 충분히 구축되어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생계를 위한 운전자들의 경우 부득이 주·정차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과 경제력이 높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잣대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기계적 평등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칙금 적용 시 일수벌과금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후략)

1. 위 토론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언 순서]	[분석 내용]
사회자	토론 주제를 제시한 후 그와 관련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①
반대 측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있다. ②
찬성 측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반대 측	물음의 형식을 통해 상대방 주장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④
찬성 측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⑤

2. 위 토론에 대한 청중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찬성 측은 자료의 출처를 밝혀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군.
- ② 찬성 측은 상대방 주장을 일부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군.
- ③ 반대 측은 관련성이 낮은 화제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있군.
- ④ 반대 측은 제도 시행의 어려움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군.
- ⑤ 찬성 측과 반대 측은 모두 상대방의 논리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군.

3. 다음은 두 학생이 나눈 대화이다. ‘윤서’가 다음 발표 시 보완해야 할 것은?

윤서: 현식아, 나 지난 화법 시간에 발표한 거 어땠어?
현식: 아, 우리나라의 전통혼례에 대해 발표한 거?
윤서: 어, 그래. 내가 발표를 잘하고 싶어서 도서관에 가서 전통 혼례의 절차, 혼례 시 착용하는 의복, 그리고 혼례 물품 등에 담긴 의미를 찾아봤어. 그리고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전통혼례의 차이점까지 조사했거든. 그런데도 발표할 때는 좀 많이 떨리더라.
현식: 음……. 그래. 좀 긴장하는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평소와는 다르게 큰 목소리로 발표해서 맨 뒤에 있던 나에게도 잘 들리더라. 내용도 알차고 좋았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들을 콕콕 짚어 냈어?
윤서: 그거? 내가 사실 발표 준비하면서 전통혼례에 대해서 뭐가 궁금한지 친구들한테 미리 물어봤지. 근데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았어?
현식: 전통혼례의 절차를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잘 몰랐던 의미도 얘기해 준 것은 좋았어, 그런데, 음……. 다른 나라의 혼례 사례들은 내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

- ① 시청각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말한다.
- ② 듣는 이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말한다.
- ③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성량으로 말한다.
- ④ 화제의 성격에 맞게 내용을 조직하여 말한다.
- ⑤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미리 조사하여 말한다.

[4~5] 다음은 면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면접관: 지금부터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학생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심리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하여 답변해 보세요.
학생1: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저의 꿈은 경찰이에요. 근데 요즘은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요. 이러한 범죄에 대처하려면 이제는 범인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경찰에게 필수적인 능력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심리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학생2: (면접관과 시선을 맞추며)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 사이의 관계나 심리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어내서 친구들을 놀라게 한 적도 있었습니 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면접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입학 후 학업 계획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학생1: 저는 미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교육과정을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1학년 때에는 평소에 흥미 있었던 심리학 개론, 심리 통계 등 전공 필수 과목을, 2학년 때에는 내가 하려는 직업과 관련된 법심리학, 범죄 심리학과 같은 선택 과목을 공부할 계획이에요.

학생2: 음…….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일단 전공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면접관: 마지막 질문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지음이 있습니까? 있다면 함께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1: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데……. [A] 근데 지음이 뭐예요?

학생2: 죄송합니다. 저도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 두 학생에 대해 면접관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면접 채점표

평가 준거	학생1		학생2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지원 동기를 면접관의 질문 의도에 맞게 답변했는가?	✓			✓	... ①
학업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답변했는가?		✓		✓	... ②
불필요한 내용이 답변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③
격식에 맞는 어법으로 답변했는가?		✓	✓		... ④
비언어적 표현이 적절한가?	✓		✓		... ⑤

5. [A]에서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한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학생들이 답변의 순서를 지키지 않고 말했기 때문이다.
- ② 학생들이 서로에게 과도한 경쟁심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 ③ 면접관이 학생들의 면접 태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 ④ 면접관이 두 학생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⑤ 면접관이 사용한 어휘를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6. <보기>를 읽고, 작문 과제에 맞는 글을 쓰기 위해 구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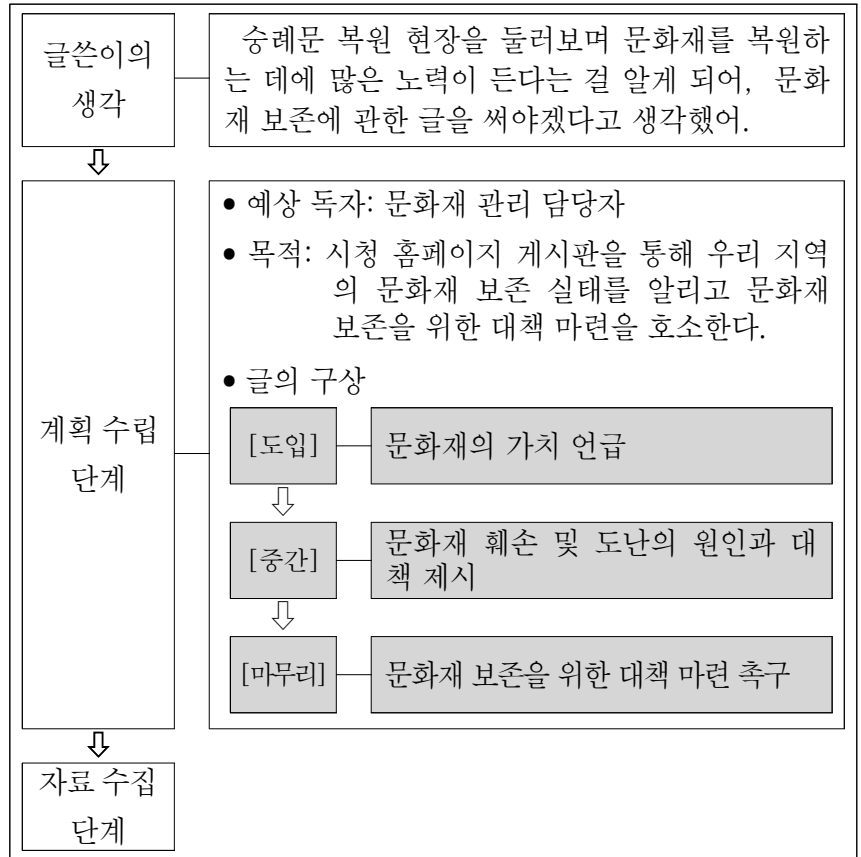
〈 보 기 〉

우리 놀이 문화에는 ‘깍두기’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깍두기는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정식 김치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되어 놀이할 때의 ‘깍두기’라는 명칭이 생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깍두기’는 놀이에 참여하고 싶지만 능력이 부족하여 어느 편에서도 참여시키려 하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지 않고 양쪽에 번갈아 참여시키기 위해 마련된 규칙입니다. ‘깍두기’도 이렇게 참여의 기회를 얻다 보면 놀이에 익숙해져 잘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깍두기’는 어떤 편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문 과제
○ 글의 종류: 주장하는 글 ○ 조건 - 놀이 문화에서의 ‘깍두기’의 긍정적인 측면, 또는 부정적인 측면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내용을 생성할 것. - 예상 독자를 명시적으로 밝힐 것.

- ① ‘깍두기’는 소속된 자기편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동아리 소속 여부와 축제 시 활동의 적극성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보고서를 써야겠어.
- ② 조선 시대에는 깍두기 김치가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능력 있는 친구들과만 가깝게 지내려는 학생들에게 충고하는 글을 써야겠어.
- ③ ‘깍두기’도 놀이에 자주 참여하다 보면 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진로 체험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달라고 건의하는 글을 써야겠어.
- ④ ‘깍두기’의 활동에 의해 놀이의 결과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참여만 하면 봉사시간이 부여되는 단체 봉사활동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써야겠어.
- ⑤ ‘깍두기’는 능력이 부족한 참여자를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별 활동 시 능력이 부족해서 발표 기회를 얻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기회를 보장해 주자고 급우들에게 제안하는 글을 써야겠어.

[7~8] 다음은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한 과정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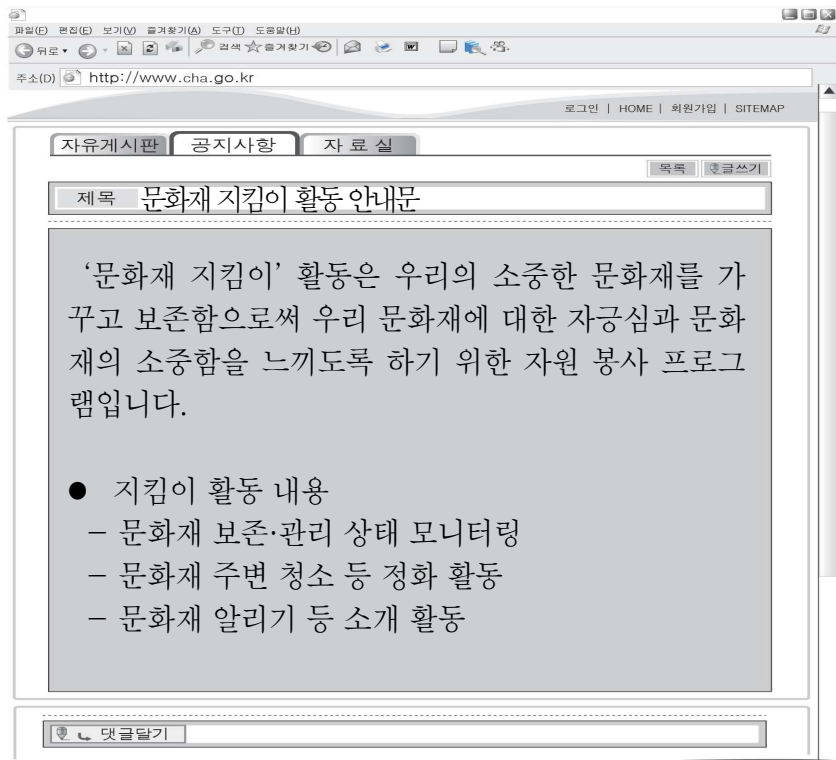
7. <보기>는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글의 구상’을 보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신문기사 2012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문화재 도난 또는 도굴의 누적 건수가 729건에 이른다. 그러나 도난 당한 문화재 회수율은 17.5%에 불과하며, 해외 유출 문화재의 회수율 및 도굴 과정에서 파손된 문화재의 복원율도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 △△신문	(나) 인터뷰 문화재 손실을 막으려면, 현장과 소방서의 연계를 강화하고 방재 관련 지침서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재 시설마다 방범용 CCTV를 10대 넘게 설치하려면 관계 법령을 정비해서 문화재 관리에 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 ○○○ 교수														
(다) 통계 자료 (○○지역 소재 문화재) 1. 화재 정보 장치 설치 현황 <table border="1"> <caption>화재 정보 장치 설치 현황</caption> <tr><th>구분</th><th>비율</th></tr> <tr><td>설치</td><td>36%</td></tr> <tr><td>미설치</td><td>64%</td></tr> </table> 2. CCTV 설치 현황 <table border="1"> <caption>CCTV 설치 현황</caption> <tr><th>구분</th><th>비율</th></tr> <tr><td>미설치</td><td>34%</td></tr> <tr><td>11대 이상</td><td>17%</td></tr> <tr><td>10대 이하</td><td>49%</td></tr> </table>		구분	비율	설치	36%	미설치	64%	구분	비율	미설치	34%	11대 이상	17%	10대 이하	49%
구분	비율														
설치	36%														
미설치	64%														
구분	비율														
미설치	34%														
11대 이상	17%														
10대 이하	49%														

- ① (가)를 활용하여, [도입] 부분에 ‘문화재 훼손 및 도난의 심각성’을 추가해야겠어.
- ② (가), (나), (다)-2를 활용하여, [중간] 부분에 문화재 도난 원인의 세부 항목으로 ‘도난 방지 시설의 미비’를 넣어야겠어.
- ③ (다)-1을 활용하여, [중간] 부분에 문화재 훼손 원인의 세부 항목으로 ‘화재 예방 시설의 미비’를 넣어야겠어.
- ④ (나)를 활용하여, [중간] 부분에 문화재 훼손에 대한 대책의 세부 항목으로 ‘관계 법령 재정비 및 정부의 지원 확대’를 넣어야겠어.
- ⑤ (가)를 활용하여, [마무리] 부분에 ‘해외 유출 문화재 반환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 촉구’를 추가해야겠어.

8. 다음은 자료 수집 단계에서 접하게 된 안내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 지킴이’를 모집하는 홍보 문구를 작성한다고 할 때,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 < 보 기 —

- ‘지킴이 활동 내용’을 언급할 것.
- 속담이나 격언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동참을 권유할 것.
- 의인법을 사용할 것.

- ①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모두 발 벗고 나서서 문화재를 살피는 지킴이가 됩시다.
- ② 사라져 가는 우리의 관심, 외로워하는 우리의 문화재.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합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문화재를 알립니다.
- ③ 낙서로 얼룩진 문화재, 장난으로 부서진 문화재.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 한 문화재 훼손은 모든 문화재의 훼손으로 이어집니다.
- ④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 주변의 문화재부터 깨끗하게 가꾸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문화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 ⑤ 문화재의 흐느낌이 들리지 않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문화재의 잃어버린 미소, 누구의 잘못일까요?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친구들에게 여행지를 추천하는 글을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자.

[학생이 쓴 글]

— 처음 쓴 글

진도에 가면 조수간만에 따라 바다가 갈라져 드러나는 바닷길이 있어. 그때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리는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아.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진도 여행을 추천 할게.

A

— 수정하여 쓴 글

진도에서는 조수간만에 따라 바다가 갈라져 마치 모세의 기적과 같은 바닷길이 형성됩니다. 이 기간에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려 남도들노래를 배우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여행으로 자연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우리의 전통 문화도 경험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진도 여행을 추천합니다. 올해 ‘신비의 바닷길 축제’ 기간은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입니다.

B

— 게시판에 올린 글

제목 : ‘진도, 신비의 바닷길’ 여행을 추천합니다!

진도에서는 조수간만에 따라 ㉠ 물의 수심이 낮아지면서 바닷길이 형성됩니다. ㉡ 예를 들면, 조개도 줍고 지역특산물도 무료로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강술래 ㉢ 공연과 남도들노래도 배울 수 있습니다. ㉣ 진도군 역시 이 축제로 해마다 적지 않은 관광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축제에서 남도민요를 배웠던 경험과 바닷길을 걸으며 느꼈던 상쾌한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해 보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많이 ㉤ 소개해 주세요.

한 번의 여행으로 자연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우리의 전통 문화도 경험할 수 있는 진도 여행! 올해 ‘신비의 바닷길 축제’ 기간은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입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 ‘신비의 바닷길 축제’ 홈페이지 <http://miraclesea.jind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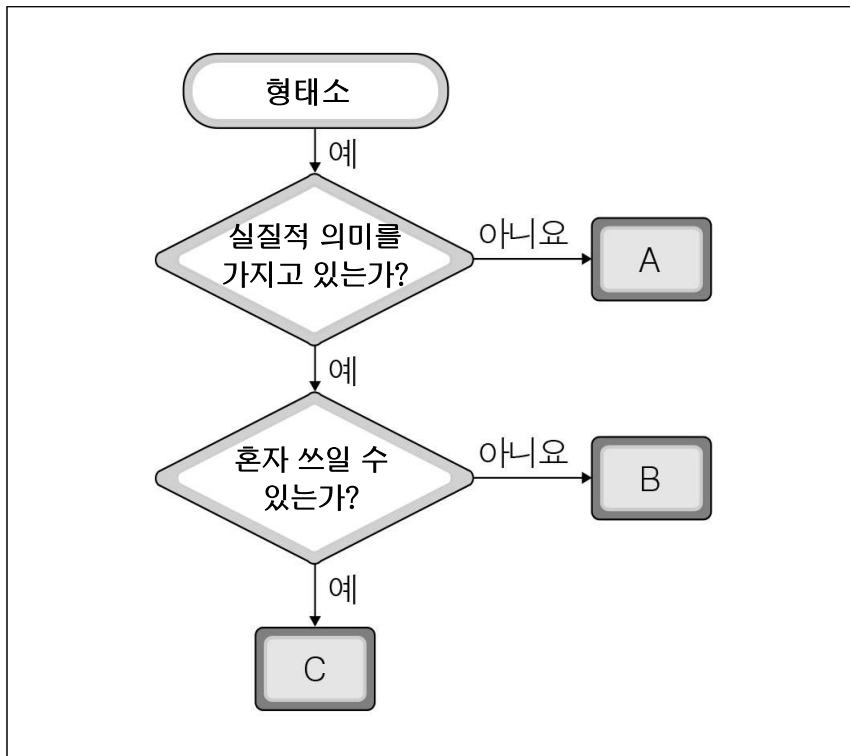
9. 작문 과제의 수행 중 A, B에서 활용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글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 축제의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한다.
- ② A: 학교 홈페이지는 여러 사람이 읽는 공식적인 매체이므로 정중한 표현을 사용한다.
- ③ B: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직접 체험한 내용을 추가한다.
- ④ B: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한다.
- ⑤ B: 독자가 축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더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미가 중복되므로 ‘물의’를 삭제한다.
- ② ㉡: 문장 간 긴밀한 연계를 위하여 뒤의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 ③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공연도 보고’로 고친다.
- ④ ㉣: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 ⑤ ㉤: 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소개시켜’로 고친다.

11. 다음의 탐구 과정에 따라 <보기>의 ㉠~㉣을 분류하고자 한다. A~C에 해당하는 사례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북두칠성은 ㉠ 어느 계절에나 북쪽 밤하늘을 보면 쉽게 찾을 수 ㉡ 있다. 북두칠성을 흔히 국자㉢ 에 비유하는데, 그것이 국자라면 국을 쏨을 때 국이 흐를 마지막 두 별을 잇㉣ 는 직선상에 있는 별 중 가장 밝고, 두 별의 간격의 다섯 배쯤에 있는 별을 발견할 것이다. 그 ㉤ 자리에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밤 하늘의 북극성이다.

	A	B	C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12. 다음은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 자음 동화

자음 동화에는, 자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비음의 영향을 받아 각각 ‘ㅇ, ㄴ, ㄹ’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와 자음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서 유음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있다. ‘국물[궁물]’은 ‘ㄱ’이 ‘ㄹ’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의 사례이며, ‘난리[날리]’는 ‘ㄴ’이 ‘ㄹ’ 앞에서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의 사례이다.

선생님의 설명

‘음운의 첨가’란 원래는 없던 소리가 첨가되어 발음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맨입으로는 알려 줄 수 없다.’에서 ‘맨입’은 ‘[맨닙]’으로 발음됩니다.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뒷말의 첫 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기 때문이지요. 또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 ㄹ’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도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됩니다. 이때에는 ‘뒷문[뉘문]’의 경우처럼 앞말에 사이시옷(‘ㅅ’)을 넣어서 이를 표시해 준답니다.

< 보 기 >

- ㄱ. 그는 날렵한 ㉠ 콧날[곤날]이 매우 인상적이다.
- ㄴ. 나는 아끼던 ㉡ 색연필[생년필]을 잃어버려 속이 상했다.
- ㄷ. 그 사람은 회사의 ㉢ 막일[망닐]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 ㄹ. 아이가 아직 알약을 먹지 못해서 ㉣ 물약[물략]을 지어갔다.
- ㄹ. 그녀는 ㉤ 잇몸[인몸]이 약해져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 ① ㉠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으로 시작되는 합성어이므로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② ㉡에서 ‘ㄴ’ 소리가 첨가된 이유는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여’로 시작하는 합성어이기 때문이군.
- ③ ㉢는 ‘ㄴ’ 소리가 첨가된 후, ‘ㄹ’의 영향으로 ‘ㄱ’이 비음화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④ ㉣는 ‘ㄴ’ 소리가 첨가되어 ‘[물낙]’으로 바뀐 후, ‘ㄹ’의 영향으로 유음화가 일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⑤ ㉤는 사이시옷을 넣어서 ‘ㄴ’ 소리가 첨가됨을 표시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13. <보기>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설명이다. ㉠에 해당하는 것은?

〈 보 기 〉

용언의 활용에서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데, 불규칙 활용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 어간만 바뀌는 경우

<예시>	어간	어미의 기본형태	
	걷-	+ -고	→ 걷고
		+ -아/어	→ 걸어
		+ -아라/어라	→ 걸어라
		⋮	

• 어미만 바뀌는 경우

<예시>	어간	어미의 기본형태	
	이르(至)-	+ -고	→ 이르고
		+ -아/어	→ 이르러
		+ -아서/어서	→ 이르러서
		⋮	

•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

- ① 사람들을 빨리 불러 오너라.
 ② 하늘이 파래서 기분이 좋다.
 ③ 그런 식으로 말을 지어 내지 마라.
 ④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 봐라.
 ⑤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결과를 얻자.

14.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실제 발화의 의미는 말하는 이, 듣는 이, 장면 등 담화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발화에서의 지시 표현은 시간적, 공간적 장면이 있어야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높임 표현도 구체적인 발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물들 사이의 상하 관계나 친소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확신이나 추정 등 말하는 이의 심리적 태도나 의도, 생략된 내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담화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보기 2〉

영희: 여기 있던 빵 누가 치웠어? (철수를 쳐다보며) ㉠ 네가 먹었지?
 철수: 아니, 내가 먹은 건 아니고 아까 희수가 배고프다고 해서 줬어.
 영희: 아이고, ㉡ 참 잘하셨네요.
 철수: 그 빵이 네 빵이었어? 미안해. ㉢ 대신 이 과자라도 먹을래?
 영희: 그거? 그래, ㉣ 먹을래. (과자를 먹다가 건네며) 근데 넌 배 안 고파?
 철수: ㉤ 난 점심 먹었어.

- ① ㉠: 영희의 행위를 고려할 때 ‘먹었지?’라는 표현은 어떤 사실에 대해 의심하면서 이를 확인하려는 심리를 전달한다.
 ② ㉡: 발화 상황을 고려할 때 ‘참 잘하셨네요.’는 표현된 진술과 발화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 이어지는 영희의 반응을 고려할 때 ‘이’라는 지시 표현은 ‘과자’가 철수보다는 영희에게 가까운 위치에 있음을 나타낸다.
 ④ ㉣: 철수의 직전 발화 내용을 고려할 때 행위의 주체와 대상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 과자를 건네는 영희의 행위와 마지막 물음에 담긴 의도를 고려할 때 제안을 거절하려는 철수의 심리가 담겨 있다.

15. <보기>는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탐구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이어진 문장**: 둘 이상의 홀문장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ㄱ. 동생은 과일은 좋아하지만, 야채는 싫어한다.
 동생은 야채는 싫어하지만, 과일은 좋아한다.
 (동생은 과일을 좋아하다. / 동생은 야채를 싫어하다.)
 ㄴ. 철수가 오면 그들은 출발할 것이다.
 그들이 출발하면 철수가 올 것이다.
 (철수가 오다. / 그들이 출발하다.)

◦ **안은 문장**: 홀문장을 전체 문장의 한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

- ㄷ. 언니는 **그 아이**가 학생임을 알았다.
 (언니는 그것을 알다. / 그 아이가 학생이다.)
 ㄹ. **책을 읽던** 영수가 수지에게 다가왔다.
 (영수가 책을 읽다. / 영수가 수지에게 다가오다.)

* ■ 표시: 안긴 문장임.

- ① ㄱ과 ㄴ으로 볼 때, 이어진 문장은 두 문장이 ‘대조’나 ‘조건’의 의미 관계로 연결되기도 하는군.
 ② ㄱ과 ㄴ으로 볼 때, 이어진 문장은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군.
 ③ ㄱ과 ㄹ로 볼 때,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 모두 중복된 내용을 생략할 수 있군.
 ④ ㄷ과 ㄹ로 볼 때, 안긴 문장은 안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거나 명사를 꾸미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군.
 ⑤ ㄷ과 ㄹ로 볼 때, 안긴 문장과 안은 문장의 주어는 같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라고 말한다. 이러한 네트워크효과에는 유행효과와 속물효과가 있다.

어느 한 상품이 유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상품을 구입하려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소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에 영향을 받아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것을 유행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유행효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A 게임기의 가격이 20만 원일 때 5천 대, 15만 원일 때 6천 대로 수요량이 변한다고 한다. 그런데 유행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20만 원이었던 A 게임기의 가격이 15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게임기의 수요량이 6천 대가 아닌 8천 대로 늘어난다고 하자. 이는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게임기를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이들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소비가 창출된 결과, 수요량의 증가폭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행효과는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들이나 연예인을 동경하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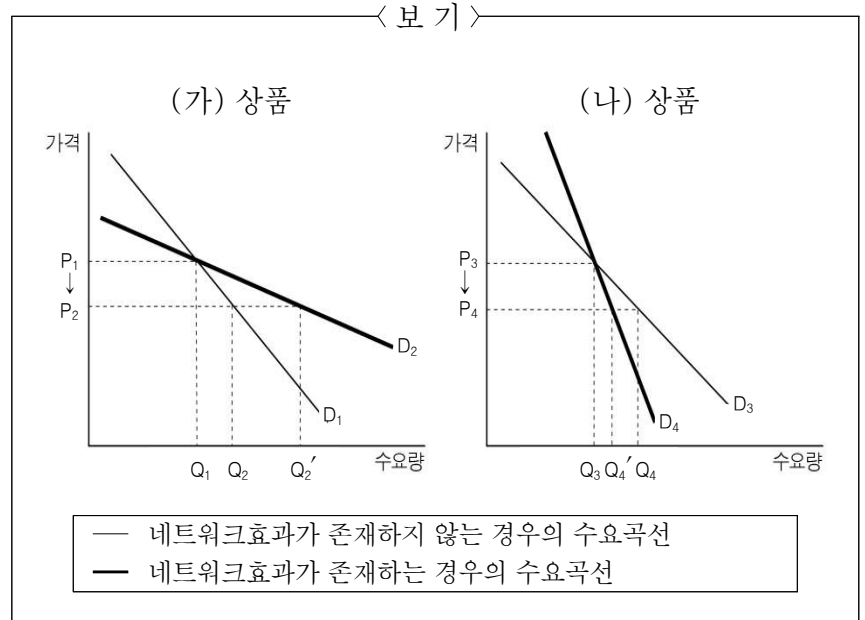
이와는 달리, 어떤 상품을 소비할 때 소수만이 소유하기를 바라는 심리가 ㉠ 깔려 있는 경우, 그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다. 이렇게 소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에 영향을 받아 그 물건을 구입하지 않게 되는 것을 속물효과라 한다. 예를 들어 속물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B 손목시계 가격이 3백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1천 개 더 늘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속물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B 손목시계의 가격이 1백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수요량의 증가폭이 5백 개에 그쳤다고 하자. 이는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어 남들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심리가 충족되지 못해 그 상품을 사지 않겠다는 사람이 생겨나므로, 결과적으로 수요량의 증가폭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속물효과는 상품의 희소성이 약화될 때 나타나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높은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 할인이나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자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다른 소비자들과 독립적으로 소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위의 두 경우와 같이 여러 사람의 수요가 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16.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네트워크효과의 개념은 무엇인가?
- ② 유행효과가 유발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③ 유행효과는 어떤 소비자에게서 잘 나타나는가?
- ④ 속물효과에 따라 수요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⑤ 속물효과를 발생시키는 심리적 배경은 무엇인가?

※ <보기>는 네트워크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의 수요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17번과 18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17. 밑글과 관련지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상품의 가격이 P_1 에서 P_2 로 하락할 때 수요량이 Q_1 에서 Q_2 로 증가했다면, 유행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겠군.
- ② (가) 상품의 가격이 P_1 에서 P_2 로 하락할 때 유행효과가 존재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Q_1 에서 Q_2' 만큼 수요량이 더 증가하겠군.
- ③ (나) 상품의 가격이 P_3 에서 P_4 로 하락할 때 속물효과가 존재한다면, 수요량은 Q_3 에서 Q_4' 로 변화하겠군.
- ④ (나) 상품의 가격이 P_3 에서 P_4 로 하락할 때 수요량이 Q_4 가 아니라 Q_4' 로 된다면, 타인과 차별화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 것이겠군.
- ⑤ D_1 과 D_2 , D_3 과 D_4 를 각각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수요가 개인의 수요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군.

18. 다음은 <보기>의 (가), (나) 상품에 대한 판매 전략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품	판매 전략
(가)	상품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그 상품에 대한 무료 체험 행사를 실시하여 사람들의 구매를 촉진한다. ①
	유명인들이 해당 상품을 방송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줌으로써 상품의 소비를 대중적으로 확대시킨다. ... ②
(나)	가격 경쟁보다는 해당 상품의 특성과 이미지를 차별화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③
	해당 상품의 수량을 조절하여 상품의 시장 판매량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④
	해당 상품과 어울리는 상품을 묶음으로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상품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줄인다. ⑤

19. 밑줄 친 단어 중, ㉠과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 ① 내 가방에 깔려 납작해진 빵을 발견했다.
- ② 할머니 집 마루에는 돗자리가 깔려 있었다.
- ③ 그 사람의 말에는 좋은 의도가 깔려 있었다.
- ④ 동네에는 그에 대한 소문이 꽤 깔려 있었다.
- ⑤ 여기저기에 깔려 있는 돈만 해도 상당한 액수였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TV나 신문 등을 통해 인간의 공격행동과 관련된 사건들을 흔히 접한다. 공격행동이란 타인에게 손상이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진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공격행동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하였다.

프로이트(Freud)는 인간은 생존 본능을 지니고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 받으면 본능적으로 공격행동을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달라드(Dollard)는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획득하는 데에 간섭이나 방해받을 때, 욕구좌절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공격행동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욕구좌절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공격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욕구좌절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공격행동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공격행동이 일어나는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 반두라(Bandura)는 인간의 공격행동이 관찰을 통해 학습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주의집중 과정에서는 타인의 공격행동을 관찰하면서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공격행동을 관찰하게 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관찰 대상과 연령이 비슷할수록 그와 같은 행동이 학습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파지* 과정에서는 관찰한 공격행동을 머릿속에 기억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이 관찰한 것을 언어적 기호 또는 영상의 형태로 기억하는 인간의 인지 능력과 관련이 있다. 이 과정에서는 인지적 시연*이 공격행동에 대한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 즉 관찰한 공격행동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이를 머릿속으로 그려 보는 것만으로도 기억이 오래 남게 된다. 세 번째 행동재생 과정에서는 머릿속에 저장된 공격행동을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한번 실행해 보게 된다. 즉 관찰된 공격행동을 단순히 따라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과 관찰 대상의 행동을 일치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파지 단계와 마찬가지로 인지적 시연이 반복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동기부여 과정에서는 공격행동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면서 다음에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동기가 부여된다. 즉 자신의 공격행동으로 무엇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공격행동을 다시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자신의 공격행동에 대해 직접 보상을 받는 경우에도 동기가 부여되지만 다른 사람이 공격행동을 한 후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한 관찰에 의해서도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반두라의 견해는 인간의 공격행동이 드러나는 데에는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인간 내부의 인지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파지: 경험에서 얻은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작용.

* 인지적 시연: 어떤 행동을 관찰한 후 이를 머릿속으로 그려 보는 것.

20.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비유적 표현을 구사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 ② 통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③ 상반된 이론을 비교하여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특정 행위가 나타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다양한 이론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1. <보기>는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초등학교 A 군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으로, 자신이 폭력 행동을 한 후 자신을 대하는 주변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에 우쭐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자주 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한편 A 군은 평소 폭력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는 영상물과 게임을 즐겼다고 한다. 실제 △△ 청소년재단이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폭력적인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접한 후 폭력적인 행위를 자주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흉내내는 학생이 많았다고 한다.

- ①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이 폭력적인 영상물을 보고 그것을 흉내 내는 것은 공격행동을 재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A 군의 공격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난 것은 파지 과정에서 인지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공격행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의집중 과정을 거치는데, A 군은 평소 공격행동이 학습되기 쉬운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공격행동이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상이 필요한데, 주변 친구들의 태도가 A 군의 공격행동에 동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 ⑤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이 폭력적인 영상물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은 공격행동의 인지적 시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2.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작성한 독서록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글을 읽고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 공격행동의 개념을 알 수 있었다. 요즘 공격행동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 공격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였다. 그중 달라드의 견해로 설명할 수 있는 공격행동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 놀이기구를 타려고 오랫동안 줄을 서 있던 어떤 사람이 새치기하는 사람을 때려서 싸움이 일어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달라드의 견해에 한계가 있다는 글쓴이의 생각도 타당한 것 같다. ㉢ 달라드의 견해로는 자신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은 사람에게 재미 삼아 공격행동을 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대체로 반두라의 견해를 다루고 있는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 관찰된 공격행동이 파지 과정에서 언어적 기호보다는 영상의 형태로 더 잘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보아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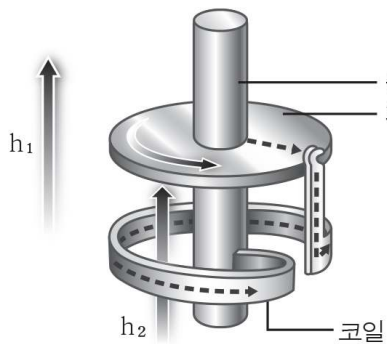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지구가 만들어 낸 커다란 자기장 속에서 살고 있다. 만약 금성처럼 지구에 자기장이 생성되지 않았다면 태양으로부터 쏟아지는 전기성을 띤 입자들을 막지 못했을 것이며, 그 결과 전기 입자들이 지닌 높은 에너지로 인해 대기층이 손상되어 생명체의 생존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구의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과거의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에 고체로 된 영구자석이 들어있어서 지구 자기장을 형성한다고 추측했다. 이를 영구자화설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구 내부의 온도는 물질이 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 즉 ‘큐리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이 가설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그 이후에 과학자들은 지구의 외핵을 이루는 물질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물질들의 대부분은 전기 전도도가 높은 철과 니켈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외핵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유동적인 액체 상태이므로 지구의 자전 운동에 의해 외핵 내부를 순환할 것이고, 이러한 전기 전도도가 높은 물질의 유동적인 순환은 전류 생성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가정과, 전류가 생성되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에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시스템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만 전기 전도도가 높은 물질의 순환만으로는 전류가 생성될 수 없으므로 전자기유도현상*을 근거로 지구 외부로부터의 자기장이 지구 자기장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림>

이와 같은 지구 자기장 형성 원리를 증명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를 다이나모라고 한다. ㉠ 다이나모는 <그림>과 같이 중심축과 전기 전도도가 높은 물질로 구성된 회전판, 전류를 계속 순환시키기 위해 중심축과 회전판을 연결한 코일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중심축을 돌리면 회전판이 함께 움직이게 된다. 이후 <그림>의 h_1 과 같이 중심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1차적인 자기장을 형성시켜 주면 전자기유도현상에 의해 회전판에서 전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전류는 코일을 따라 흐르면서 코일 주변에 <그림>과 같이 2차적인 자기장(h_2)을 형성하게 된다. 이후 중심축이 계속 돈다면 1차적인 자기장이 없다 하더라도 2차적인 자기장에 의해 전류가 사라지지 않게 되고, 또한 전류가 코일을 따라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2차적인 자기장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여 지구 자기장의 형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이나모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지구 자기장은 전기 전도도가 높은 물질의 순환과 외부로부터 주어진 1차적인 자기장의 영향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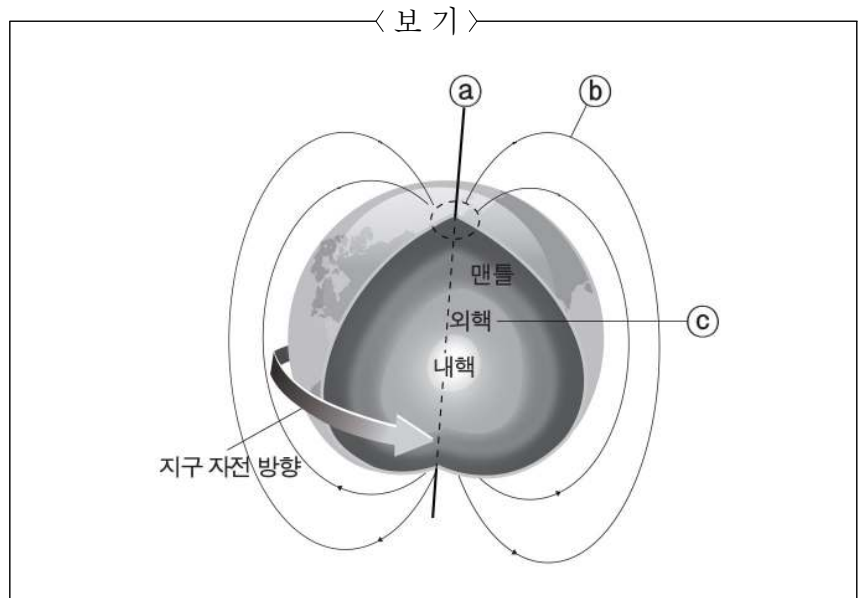
* 자성: 자석이 갖는 작용이나 성질.

* 전자기유도현상: 자기장 속에서 도체를 움직이거나, 도체의 주변에서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전류가 생성되는 현상.

23.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지구 외핵을 이루는 주요 물질은 철과 니켈이다.
- ② 큐리온도보다 높아지면 물질의 자성이 유지될 수 없다.
- ③ 전자기유도현상은 지구 자기장의 존재에 의해 증명되었다.
- ④ 과거의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에 자석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 ⑤ 지구 자기장은 지구로 들어오는 전기성을 띤 입자를 막아준다.

※ <보기>는 지구의 단면과 지구 내부로부터 형성된 자기장을 나타낸 것이다. 24번과 2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24. ㉠의 구성 요소를 <보기>의 ㉡~㉣와 대응시켜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
①	중심축	2차적인 자기장	회전판
②	회전판	1차적인 자기장	코일
③	중심축	1차적인 자기장	회전판
④	회전판	2차적인 자기장	코일
⑤	코일	2차적인 자기장	중심축

25. <보기>와 관련지어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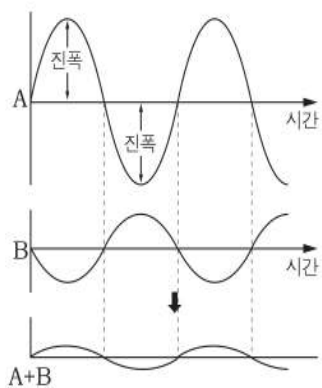
- ① ㉡를 중심으로 한 지구의 자전은 ㉢가 유지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겠군.
- ② ㉡를 중심으로 한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순환하는 것이겠군.
- ③ ㉢가 형성되었다고 해도 지구 외부로부터의 자기장에 계속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에서 발생한 전류는 유지될 수 없겠군.
- ④ ㉣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전기 전도도가 높은 것은 ㉢를 형성하는 조건이 되었겠군.
- ⑤ ㉣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순환하고 있더라도 지구 외부로부터의 자기장이 없었다면 ㉣에는 전류가 발생할 수 없었겠군.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리는 장애물의 가장자리를 지날 때 회절*되기 때문에 기존의 방음벽만으로는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 따라서 방음벽 상단의 끝 부분에서 회절되는 소음까지 흡수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방음벽 상단에 별도의 소음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대표적인 소음저감장치로 흡음형과 간섭형이 있다. 흡음형은 방음벽 상단에 흡음재를 설치하여 소음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보통 흡음재에 사용되는 섬유질 재료에는 스펀지의 내부와 같이 섬유소 사이에 미세한 공간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소음과 섬유소의 접촉면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흡음재 내부로 유입된 소음은 미세한 공간을 지나가면서 주변의 섬유소와 접촉하게 되는데, 이때 소음이 지닌 진동에너지로 인해 섬유소가 진동하게 된다. 즉 소음의 진동에너지가 섬유소의 진동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소음이 흡음재로 흡수되는 것이다.

한편 간섭형은 소리가 지닌 파동의 간섭 현상을 이용하여 회절음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모든 소리는 각각 고유한 파동을 지니고 있는데 두 개의 소리가 중첩되는 것을 파동의 간섭 현상이라고 한다. 간섭 현상이 일어나 진폭이 커질 경우 소리의 세기도 커지고, 진폭이 작아질 경우 소리의 세기도 작아진다. <그림>에서 A를 어떤 소리의 파동이라고 할 때 B는 A보다



<그림>

다 진폭은 작고 위상이 반대인 소리의 파동이다. 만약 어느 지점에서 파동의 위상이 반대인 두 소리가 중첩되면 <그림>의 A+B와 같이 진폭이 작아지면서 소리의 세기가 작아지는데 이를 상쇄 간섭이라고 한다. 반면 파동의 위상이 서로 같은 두 소리가 중첩되어 소리의 세기가 커지는 것을 보강 간섭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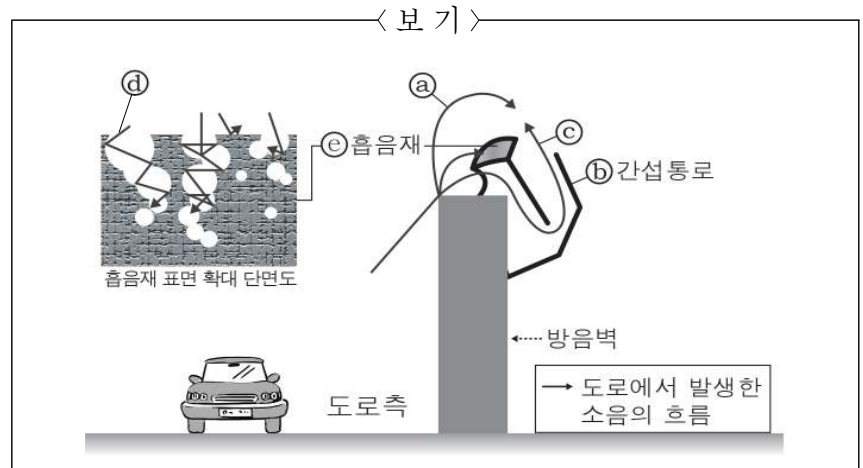
간섭형 소음저감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방음벽 상단에서 발생하는 회절음의 파동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이후 방음벽 상단에 간섭 통로를 설치하는데 이는 회절음의 일부분이 간섭 통로를 거친 후, 이를 거치지 않은 또 다른 회절음과 시간차를 두고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간섭 통로의 길이는, 미리 파악한 회절음의 파동과 간섭 통로를 거친 회절음의 파동이 간섭 통로가 끝나는 특정 지점에서 정반대되는 위상으로 중첩되게 조절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음저감장치는 회절음과 간섭 통로를 거친 소리의 상쇄 간섭 현상을 활용하여 소음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방음벽에 설치하는 소음저감장치 중에는 회절음의 감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흡음형과 간섭형을 혼합한 소음저감장치도 있다.

* 회절: 소리가 장애물의 가장자리를 지날 때 휘어져 나아가려는 성질. 이로 인해 발생한 소리를 회절음이라고 함.

26.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음저감의 원리
— 소리의 상쇄 간섭 현상을 중심으로
- ② 방음벽의 내부 구조
— 흡음재의 재료를 중심으로
- ③ 소음저감장치의 발전 과정
— 소리에 대한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 ④ 소리의 특성을 이용한 소음저감장치
— 방음벽의 종류를 중심으로
- ⑤ 방음벽의 효과를 높이는 소음저감장치
— 흡음형과 간섭형을 중심으로

27. <보기>는 흡음·간섭 혼합형 소음저감장치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가 중첩될 때 ㉠과 ㉡의 파동의 위상이 반대이면 소음이 감소한다.
- ② ㉡는 소리의 간섭 현상을 활용하여, 중첩된 소음의 세기를 작아지게 하는 장치이다.
- ③ ㉡의 길이에 의해 ㉠과 ㉡는 시간차를 두고 특정 지점에서 중첩된다.
- ④ ㉡와 ㉢을 동시에 설치하면 방음벽 뒤쪽으로 전달되는 소음의 감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⑤ ㉢ 내부에서 ㉠과 섬유소의 접촉면이 줄어들수록 소음 저감 효과는 더 커진다.

28. 윗글을 읽은 후 <보기>와 같은 실험 자료를 접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텅 빈 운동장에서 두 개의 스피커를 마주 보게 설치한 후 동일한 파동을 지닌 소리를 발생시켰다. 이때 스피커 소리 이외에는 소리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없다고 가정하자. 이후 두 스피커의 가운데 지점(㉠)에서 한쪽 스피커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이면서 소리의 세기를 측정해 보니, ㉠ 지점에서 ㉡ 지점으로 갈수록 측정된 소리의 세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 지점을 지난 후부터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 ① ㉡ 지점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두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양한 지점에서 중첩되겠군.
- ③ 다른 스피커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움직이면서 측정한다면 소리의 세기는 일정해지겠군.
- ④ 한 개의 스피커를 끈다면 <보기>와 같은 소리 세기의 변화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겠군.
- ⑤ ㉠ 지점에서 측정되는 소리보다 ㉡ 지점에서 측정되는 소리의 진폭이 더 작다고 할 수 있겠군.

[29~30] 다음은 읽기 과제를 수행하는 두 학생의 사고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영수: 기억과 망각에 대해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이 세 권 중에서 뭘 읽어야 할까? 아무래도 제목으로 봐서는 「망각의 신비」가 재미있을 거 같아. 일단은 목차를 한번 봐야지. 음, 망각 말고도 기억, 뇌의 구조에 대한 소재목도 있네. 아마도 기억과 망각의 과정에서 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설명할 것 같아. (책을 읽어 나가다) ‘망각’의 원리를 설명한 이 부분이 중요한 거 같으니까 간단히 요약해 적어 줘야겠어. 이렇게 적어 두면 나중에 보고서 쓸 때 기억이 잘 날거야. (책을 모두 읽은 후) 이제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봐야겠어.

진호: ‘나의 관심사’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써야 해서 「풍속화 바로 보기」란 책을 샀는데, 제목을 보니 이 책이라면 풍속화 감상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겠지? 다양한 그림들을 실제로 감상한 내용도 있을 거야. 예전에 전시회에 가서 풍속화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단순한 소재에도 다 의미가 있다고 했었지.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겠어. (책을 읽다가) 아, 풍속화는 이렇게 감상하는 거구나. 그리고 인물의 표정이나 소재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 글에 ‘해학’이나 ‘소박함’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걸 보니, 이게 이 글의 핵심어인 것 같아. ‘해학’의 뜻을 사전에서 확인해 봤더니 글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 (책을 다 읽은 후) 이제 소개하는 글을 써야지. 음, 뭐라고 쓸까? ㉠ 아까 어떻게 감상한다고 했지? 그림의 구도에 따라 다르다고 읽은 거 같긴 한데……. 구체적인 감상 방법이 생각이 안 나네.

29. ‘영수’와 ‘진호’가 공통적으로 사용한 읽기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책의 제목이나 목차를 보고 내용을 짐작해 본다.
- ② 글이 가지고 있는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 ③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따져 가며 읽는다.
- ④ 글에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 ⑤ 자신의 독서 과정을 성찰해 본다.

30. ㉠에 대해 ‘영수’가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메모를 해 두면 글의 내용을 쉽게 떠올릴 수 있어.
- ② 핵심 단어를 파악하면서 읽으면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잘 파악할 수 있어.
- ③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으며 읽으면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 ④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읽으면서 확인하면 궁금했던 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
- ⑤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배경 지식을 활성화해야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사라수 대왕과 원왕 부인이 석가세존으로부터 소임을 맡아 서역국으로 가던 중, 만삭의 부인은 더 이상 동행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스스로 장자의 종이 되기로 하고 받은 돈을 석가세존에게 바칠 것을 대왕에게 부탁한다. 이후 부인은 안락국을 낳고, 성장한 안락국은 장자의 핏박을 견디지 못하여, 하늘에서 온 동자의 도움을 받아 부친을 찾아서 서역국으로 향한다. 이에 장자는 부동에게 안락국을 잡아 오라고 명하지만 실패한다.

이때에 안락국이 동자와 더불어 운대에서 내려 동자에게 백배 사례하고 사뢰되,
“사라수 대왕 계옵신 데는 어디로 가옵나이까?”
동자 가로되,
“이 길로 동쪽으로 행하면 백수 노옹이 은지계에 은장군*을 지고 나오며 왕생계*를 외우며 나올 것이니 찾아 보라.”
하니, 안락국이 하직하고 동쪽으로 가더니, 과연 백수 노옹이 은지계에 은장군을 지고 물을 지고 왕생계를 외우며 오시거늘, 안락국이 짐작하고 하도 반갑사와 앞에 나아가 황망히 복지(伏地)하온대, 대왕이 물으시되,
“어떤 아이길래 나를 보고 이렇듯이 관대하는고?”
안락국이 어쭈오되,
“소자는 안락국이로소이다.”

하고 아뢰오니, 대왕이 이 말을 들으시고 어찌하실 줄을 모르시고 안락국의 손을 잡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가라사대,
“너의 어머니가 어찌 지내시더냐?”
하시니, ㉠ 안락국이 장자에게 당하시던 전후 사연을 낱낱이 다 아뢰니, 대왕이 더욱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며 안락국을 데리고 숙소에 들어가서 수삼 일 후 꽃 세 송이를 주시며,
“장자가 네 어머니를 죽였을 것이니, 죽인 곳을 찾아가서 뼈를 모아 놓고 백련화로 씻으면 뼈가 제좌(諸座)에 이를 것이요, 그제야 적련화로 씻으면 살이 될 것이요, 그제야 홍련화로 씻으면 숨을 내칠 것이고 완인(完人)이 될 것이니 모시고 와라.”

하시니 안락국이 하직하고 가니라.

이때 장자 중놈 부동이 돌아와 장자에게 고하기를, 안락국을 잡아 오지 못한 사정을 고하니, 장자 크게 노하여 원왕 부인을 급히 잡아내어 소리를 뇌성(雷聲)같이 높이 질러 이르되,
“너 안락국을 어디로 보냈는가 바로 이르라.”
하는 소리 벽력(霹靂) 같으니, 부인이 정신이 아득하고 혼불이 체(離體)하여 답하되,
“날더러 가노라 이르지 아니하고 갓사오니, 죽어도 모르나이다.”
하시니, 장자 노기 발발하여 앞에 놓였던 바둑판으로 박살(搏殺)하여 죽이니라.

안타깝다.

이때 원왕 부인의 꽃 같은 화용월태(花容月態)로 칠보 궁전 어디 두고 저 몸쓸 천인(賤人)에게 죽어 범라국 임정사로 가는데 숲 속에 넣으라 하니, 중놈들이 갓다가 대밭 속에 버리고 오니, 이때 마을 사람들이 입 있는 이마다 불쌍하다고 가서 보니, 원왕 부인의 옥 같은 신체를 까막까치 다 물어 가고 뼈만 남았는데, 바람결에 쫓아 나는 소리 있으되, 대숲 속에서 염불 소리 차례로 나는지라. 동풍이 건듯 불면 나무아미타불, 남풍이 건듯 불면 석화중생 아미타불, 서풍이 건듯 불면 도제중생 아미타불 하더라.

이때 마을 사람들이 슬피 이르되,

“안락국아 안락국아, 너는 어디 가고 너의 어머니 죽는 줄도 모르니 불쌍하구나.”

하니 그 말 아이들이 듣고 노래 삼아 외우더라.

이때 안락국이 길 떠난 지 몇 개월 만에 장자의 집 근처에 와 모부인 소식을 탐지할새, 나무 베는 목동들이 홀연 노래를 부르되,

“안락국은 어디 가고 슬프고 불쌍하다, 너의 어머니를 죽여다가 범라국 임정사로 가는데 수풀 밑에 넣어 몸은 까막까치 밥이 되고 혼백은 화(化)하여 염불 소리 되었는데, 너는 모르는가?”

하거늘, 안락국이 이 말 듣고 나아가 그 아이더러 묻되,

“그 노래 다시 한 번 불러라. 나도 들어 보자.”

한데 그 아이 대답하되,

“우리 부모님께서 하루 한 번씩만 하라 하였으며, 다시는 하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안락국이 이르되,

“값을 줄 것이니 부르라.”

하니 그 아이 대답하되,

“무엇으로 값을 주려 하는가?”

하거늘, 안락국이 찻던 구슬을 준다고 하니 그제야 짓을 내어*

㉠ 노래를 불러 이르되,

“안락국아…… 너는 어디 가고 너의 어머니 죽여다가 범라국 임정사로 가는 수풀 속에 버렸으니, 까막까치 밥이 되어 다 물어 가고 혼백은 화하여 염불 소리 되었는데, 너는 어디 가고 모르는가? 안락국아, 슬프고 가련하다. 안락국아, 너의 어머니 찾아가거라.”

하거늘, 그 노래 듣고 마음이 녹는 듯 스는 듯하여 황황망극히 엎어지며 곱드러지며* 찾아가 본즉 과연 뻐만 남았거늘, 눈물을 흘리고 뻐를 주워 모아 놓고 보니 손가락 하나가 없거늘,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우노라니 한 까마귀가 손가락 하나를 물어다가 안락국 앞에 내려놓거늘, 그제야 맞추어 놓고 백련화로 씻으니 뻐가 제좌에 온 듯하고, 또 적련화로 씻으니 살이 완연하고, 또 홍련화로 씻으니 숨을 내쉬고 정신이 들어 일어 앉으시거늘 안락국이 부인 앞에 나아가 붙들고 통곡하며,

“어머니 어머니야, 소자와 같이 부왕 계신 데로 가사이다.”

하온대, 부인이 이르시되,

“안락국아, 너 어디 갔던가?”

안락국이 어쭈오되,

“소자는 서천 서역국 세존님 도량에 갔삽더니, 부왕께옵서 바빠가서 어머니를 모셔 오라 하옵시매 왔사오니 바빠 가사이다.”

— 작자 미상, 「안락국전」 —

* 은장군: 은으로 만든, 물이나 술 따위를 담아서 옮길 때 쓰는 그릇.

* 왕생계: 극락왕생을 비는 계송. 계송은 부처 등을 찬양하는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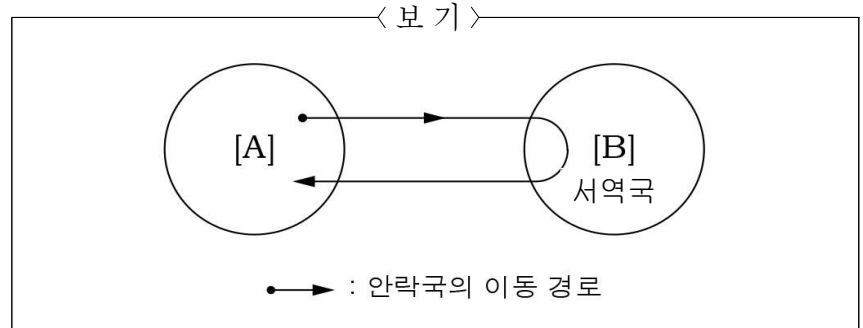
* 짓을 내어: 흥이 나서 한껏 멋을 내어.

* 곱드러지며: 고꾸라져 엎어지며.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대립 상태를 해소하고 있다.
- ② 초월적 인물이 등장하여 갈등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 ③ 인물의 성격 변화 과정을 제시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과장된 외양 묘사를 통하여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32. <보기>는 안락국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안락국은 사라수 대왕을 만나기 위해 [A]에서 [B]로 이동하는군.
- ② 부동은 [A]를 떠나는 안락국을 잡으려고 했군.
- ③ 장자는 [A]를 떠난 안락국의 행방을 원앙 부인을 통해 알아내려고 하는군.
- ④ 사라수 대왕은 안락국과 함께 [B]에서 [A]로 이동하는군.
- ⑤ 원앙 부인은 안락국이 [B]에서 [A]로 가져온 꽃에 의해 다시 살아나게 되는군.

33. ㉠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안락국의 슬픈 심리를 불러일으킨다.
- ② 안락국의 다음 행동을 유발하고 있다.
- ③ 안락국에게 죽은 원앙 부인의 위치를 알려준다.
- ④ 안락국에게 원앙 부인의 말을 대신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⑤ 안락국에게 대왕이 한 예건의 일부가 실현되었음을 알려준다.

34. <보기>는 ㉠에 대해 ‘사라수 대왕’이 보일 반응을 상상한 것이다. ()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사라수 대왕: 안락국아, 너와 네 어미의 ()을/를 생각하니 눈물을 금할 수 없구나.

- ① 간난신고(艱難辛苦) ② 고진감래(苦盡甘來)
- ③ 팔목상대(刮目相對) ④ 방약무인(傍若無人)
- ⑤ 좌고우면(左顧右眄)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지당(池塘)에 활수(活水)*이 드니 노는 고기 다 헤아리겠다
 송음(松陰)에 청뢰(淸籟)*이 나니 금슬(琴瑟)*이 여기 있구나
 └─ 앞아서 보고 듣거니 돌아갈 줄을 모르겠도다.

<제2수>

[B] 솔 아래 길을 내고 못 위에 대*를 쌓으니
 풍월연하(風月烟霞)*는 좌우(左右)로 오는구나
 이 사이에 한가히 앉아 늙는 줄을 모르겠구나.

<제3수>

[C] 집 뒤에 자차리* 뜯고 문 앞에 맑은 샘 길어
기장밥 닥게 짓고 산채羹(山菜羹)* 므로 삶아
조식(朝夕)계 풍미(風味)이 족(足)함도 내 분인가 하노라.
<제5수>

[D] 배 고프거든 머구렛* 밥 먹고 목 마르거든 바깥* 물 마시니
이리하는 가운데 즐거오미 또 있겠느냐
남의외* 부운(浮雲)* 같은 부귀(富貴)이사 부러울 줄이 이시랴.
<제6수>

[E] 도원(桃源)이 있다 하야도 네 듣고 못 봤더니
홍하(紅霞)*이 만동(滿洞)하니* 이 진짓 거기로다
이 몸이 또 엇더하뇨 무릉인(武陵人)인가 하노라.

<제14수>

- 김득연, 「산중잡곡(山中雜曲)」 -

* 활수: 흐르는 물	* 청회: 맑은 바람 소리
* 금슬: 거문고와 비파를 아울러 이르는 말.	* 대: 축대(築臺)
* 풍월연하: 바람, 달, 안개, 노을. 여기서는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뜻함.	
* 자차리: 산나물의 일종으로 추정됨.	* 산채갱: 산나물로 만든 국
* 버구랫: 바구니의	* 바갯: 바가지의
* 남의외: 다른 사람의	* 부운: 뜬구름
* 홍하: 해 주위에 보이는 붉은 노을	
* 만동하니: 골짜기 안에 가득 하니	

35.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탄을 통해 화자의 반성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직유법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3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B]와 달리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자연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주변 경치를 묘사한 후, 그 속에 머물며 즐거워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에는 [D]와 달리 화자의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 드러나 있다.
- ④ [C]와 [D]는 모두 화자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그린 후, 그러한 삶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에는 화자가 처한 공간을 이상향에 견주어 그곳에서 살아가는 화자 자신의 자긍심이 드러나 있다.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나’는 동근이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숙모를 떠올렸다. 당숙모는 빨치산이 습격했을 때 뒷간에 있다가 남편과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실성하는데, 이후 마을 아이들은 당숙모를 ‘똥먹이’라고 부른다. 인민군이 물러갈 무렵 빨치산의 앞잡이로 지목된 차 서방네 가족은 보복을 당하고 갓난애만 살아남는데, 당숙모는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내놓지 않는다.

그토록 오래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어 마침내 당숙모가 모습을 드러내었다. 거의 벌거벗은 거나 다름없는 해괴한 차림으로 당숙모는 품에 안긴 갓난애한테 젖꼭지를 물린 채 거적문을 들치고 나와서는 아무 데나 대고 함부로 낫을 휘둘러 대기 시작했다. 눈동자가 휘까닥 돌아 버린 상태였다. 어느 누구도 당숙모에게 접근을 못하고 엉거주춤 뒤로 물러서기만 했다. 눈자위를 허영게 뒤집어 간 채 이를 악물고 낫자루를 휘두르면서 당숙모는 뒷걸음질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벌거벗은 미친년 하나가 이제 때가 되면 틀림없이 잡아먹고 말 갓난애 하나를 품안에 꼭 끌어안은 채로 장대 같은 빗줄기를 뚫고 건지산 쪽을 향해 한없이 도망쳐 가고 있었다. 뒤쫓는 걸 포기하고 맥없이 돌아서면서 아버지와 큰당숙은 서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차 서방 아들을 김씨 집안 양아들로 받아들이기
 루 어른들 사이에 목계가 이루어진 셈이군요?”

침을 꿀꺽 삼키고 나서 아내가 말했다.

“그 뒷얘기 역시 털어놓자면 아주 길고 복잡하죠.”

동생이 제 형수에게 말했다.

“제아무리 길구 복잡해두 어느새 여기까지 무사히 건너왔잖아요?”

아내는 나에게 뒷얘기를 재촉했다.

“어때, 재미있어? 제법 들을 만해?”

나는 아내를 텅겨 보았다.

“벌써 결혼생활 몇 년인데 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비치지 않았죠?”

“자랑하고 싶을 만큼 즐거운 이야기는 아니야.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재미로 들어선 안 돼.”

아내의 천정 모르게 들뜨려는 마음에다 찬물을 끼얹고 나서 나는 다시 말했다.

“만약 당신 같으면 그 앨 어떻게 했을 것 같애?”

“그야 뭐 물어보나 마나죠. 비록 남의 집 자식이긴 할 망정
내 자식처럼 길러야죠. 당연히.”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기 애들을 죽인 빨갱이 자식인데도?”

“아이참, 이제 보니 그렇군요. 원수 자식은 원수나 마찬가지로
텐데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 어떻게 처리했어요?”

아내는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그런데 당숙모는 끝끝내 그렇게 하고 말았어. 그 바람에 집 안에 말썽이 떠날 날이 없었지.”

정말로 그랬다. 하루가 멀다고 집안 어른들이 큰당숙 집에 모여 드잡이 직전에까지 이르는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곤 했다. 집안의 크나큰 수치라는 것이었다. 특히라면 여자가 벌거벗고 동네 고살을 내닫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어린애라는 의견들이었다. 가뭄 흉년의 물꼬짜움만큼이나 험악한 입씨름 끝에 결국 어린애는 떼내어 광주 같은 대처 고아원에 맡기고 당숙모만 친정 동네로 보내 버리기로 합의가 되었다.

그러나 당숙모는 친절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어린애도 빼앗기지 않았다. 작은당숙모가 깊이 잠든 틈을 노

려 밤중에 살그머니 어린애를 빼내려다가 큰당숙모가 팔뚝을 물어뜯기고 손가락이 잘릴 뻔했다. 언젠가는 또 큰당숙이 똥바가지로 뒤집어쓰고 쫓겨나오기도 했다. 당숙모는 재석이네가 살던 움막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임자 없는 집을 차지하고 살았다.

젖을 빠는 어린애가 생긴 뒤부터 이상하게도 당숙모는 날이 꺾으려고 우리 외할머니의 삭신이 영검하게 쭈시기 시작해도 전처럼 그렇게 귀신같이 산발한 채 맨발로 동네를 온통 휘젓고 다니는 버릇은 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움막 앞 양지바른 곳에 나앉아 어린애한테 젖을 빨리면서 행복에 겨워 거슴츠레하니 졸린 눈을 하고 있는 당숙모를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이젠 좀 잠잠해졌는가 싶던 당숙모의 광기는 이따금 먹을 것이 떨어질 때마다 어김없이 폭발되곤 하였다. 양식을 얻으려고 큰덕에 갈 때는 언제나 어린애를 처억하니 둘러업고 낫을 휴대했다. 말이 좋아서 얻는 것이지 실상은 파랗게 날이 선 낫으로 위협해서 필요한 만큼 빼앗는 것이었다. 홀로 된 여자라고 아무도 당숙모를 깔볼 수가 없었다. 당숙모는 우리집에도 몇 차례 찾아온 적이 있었다. 으레 논이나 밭에서 뭔가 거둬들이고 난 다음이었는데, 그때마다 당숙모는 어김없이 낫자루를 손에 단단히 움켜잡고 있는 것이었다.

동근이는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이름도 없이 자랐다. 우리들한테는 그 애가 그저 ‘똥먹이 아들’이었고, 당숙모한테는 언제나 그냥 ‘어구어구 내 새끼야’였다. 그 애에게만은 사실상 이름 따위가 필요 없는 생활이었다. 그리고 그때쯤에 이르러서는 그 애가 정녕 우리 당숙모의 아들임을 부정하는 사람이 마을 안에 한 명도 없을 정도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그 애가 과거 차 서방의 막내아들이었던 사실을 일삼아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당숙모는 동근이를 호적에 올려 달라고 큰당숙에게 당당히 요구했다. 그 바람에 한바탕 또 야단법석이 일어났다. 다른 누구보다도 이미 그때는 장가를 들어 가정까지 이른 어엿한 어른인 동식 형이 가장 맹렬히 반대하고 나섰음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었다. 만약 작은아버지를 죽인 **빨갱이의 자식**이 작은아버지의 호적에 오른다면 자기 호적을 파 가지고 나가 버리겠다고 동식 형은 입에 거품을 물었다. 차 서방네 일가를 몰살하겠다고 날카롭게 다듬던 그때의 그 죽창이나 다름 바 없는 서슬이 퍼런 말씨였다.

동근이의 입적 문제가 선뜻 결말을 못 보고 있는 그 사이에 큰당숙네 집 봉당에서 불이 났다. 불길은 차곡차곡 쌓아 올린 벋단에서 일어나 안방 쪽과 건넌방 쪽을 양 갈래로 위협했다. 불길 속에서 부지깽이를 손에 든 작은당숙모가 꽤씩 기성을 질러 대며 너울너울 춤을 추고 있었다.

가까스로 불길이 잡힌 다음에 집안 어른들이 우리집에 모여 회의를 했다. 결국 동근이를 우리 김씨 집안 호적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당숙모하고 동근이의 사이는 이제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기정사실의 모자시간이었다.

“애비가 빨갱이였다고 그 자식까장 배넛빨갱이는 아니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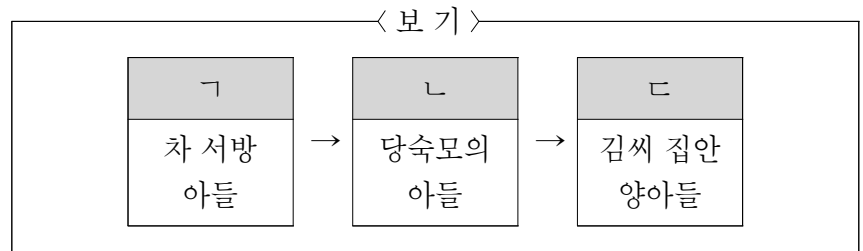
성냥과 불쏘시개로 쓸 벋단을 손에 든 채 그때까지 곳간 앞에서 버티고 있는 작은당숙모한테 회의 결과를 알려 주려고 우리집을 나서면서 큰당숙이 지껄인 말이었다. 호적에 올리려면 우선 이름이 있어야만 했다. 이렇게 해서 큰당숙의 솜씨로 우리 형제의 항렬자를 딴 동근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 윤홍길,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

37.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요약적 제시를 통해 과거의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서술자를 교체하면서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③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사건에 개입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 ⑤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38. <보기>는 서사의 흐름에 따른 ‘동근’의 상황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ㄱ은 ‘동근’을 김씨 집안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유가 된다.
- ② ㄴ에서 ‘동근’은 인물들에게 ‘똥먹이 아들’과 ‘어구어구 내 새끼’로 각각 다르게 인식된다.
- ③ ㄷ에는 ‘동근’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된 큰당숙의 태도가 드러난다.
- ④ ㄴ에서 ㄷ으로 변화된 것은 ‘동근’에 대한 당숙모의 변함없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 ⑤ ‘빨갱이의 자식’이라는 말에는 ㄴ에서 ㄷ으로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동식의 태도가 드러난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에는 이데올로기나 개인적인 원한 관계를 초월한 모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소설 속에서 전쟁은 가족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그로 인해 개인들에게 상처를 남긴다. 모성에는 이런 상처를 치유해 주고, 나아가 이데올로기로 인한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 ① 갓난애를 품에 안고 도망치는 당숙모의 행동은 개인적인 원한 관계를 넘어선 모성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족을 잃고 혼자 남은 당숙모와 동근의 모습은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가족 공동체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낫을 들고 양식을 얻으러 다니던 당숙모의 모습은 이데올로기로 인한 긴장과 갈등의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동근을 호적에 올려 달라는 당숙모의 요구에는 동근이가 집안의 일원으로 편입되기를 바라는 모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어린애가 생기면서부터 귀신같이 산발한 채 다니던 당숙모의 행동이 없어진 것은 개인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남녘 들판에 곡식이 뜨겁게 익고
장대 같은 빗줄기 오랫동안 쏟아진 다음
남지나해의 회오리바람 세차게 불어와
여름내 흘린 땀과 곳곳에 쌓인 먼지
말끔히 씻어갈 때
앞산의 검푸른 숲이 짙은 숨결 뿜어내고
대추나무 우듬지*에 한두 개
누르스름한 사과리 생겨날 때
광복절이 ㉠ 어느새 지나가고
며칠 안 남은 여름방학을
아이들이 아쉬워할 때
한낮의 여치 노래 소리보다
저녁의 귀뚜라미 울음소리 더욱 커질 때
가을은 ㉡ 이미 곁에 와 있다
여름이라고 생각지 말자
㉢ 아직도 늦여름이라고 고집하지 말자
㉣ 이제는 무엇인가 거두어들일 때

- 김광규, 「때」 -

* 우듬지: 나무의 꼭대기 줄기.

4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활유법을 구사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긴장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 ③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 ④ ‘~ 때’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 말자’와 같은 종결형을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김광규는 일상적 언어와 자연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시에서도 시인은 인생의 흐름을 계절의 변화에 대응시키고 이를 통해 성찰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 ① ‘곡식이 뜨겁게 익고’와 ‘무엇인가 거두어들일 때’를 흐름이나 변화와 관련지어 볼 때, ‘여름내 흘린 땀’은 결실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군.
- ② ‘검푸른 숲이 짙은 숨결을 뿜어내’는 것은 끊임없이 삶을 탐구하는 자세와 삶의 의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누르스름한 사과리’, ‘저녁의 귀뚜라미 울음소리’ 등과 같은 자연적 소재로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광복절’, ‘며칠 안 남은 여름방학’과 같은 일상적 언어로 시적 구체성을 획득하고 있군.
- ⑤ ‘늦여름이라고 고집하지 말자’는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군.

4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는 시간의 경과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다.
- ② ㉡에는 자연물에 의해 상기된 시간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다.
- ③ ㉢에는 지난 시간에 대한 체념이 내포되어 있다.
- ④ ㉣에는 현재 시간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다.
- ⑤ ㉢과 ㉣에는 동일한 시간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 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현’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할아버지와 현실을 개혁하려는 삶을 살았던 아버지 사이에서 방황하는 지식인이다. ‘현’은 일제 강점기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주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평범한 생활을 추구한다. 그러나 ‘현’은 월북했다가 625때 돌아온 친구 ‘연호’가 주도하는 인민재판에 분노하여 총을 난사하고, 자신도 총상을 입은 채 동굴로 피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S#53. 읍내 플랫폼

이른 새벽, 안개 속에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길 떠날 차림의 현과 고영감, 어머니가 온다. 품속에서 여남은 장 ㉠ 지전 다발을 꺼내더니.

고영감 아랫말 과수원 판 돈이여. 헛되이 쓰지 말구 꼭 대학에 붙어서 판검사가 되야 혀.

공손히 받는 현.

고영감 내가 우리 집안에 기둥이 되야 혀. 부디 성공을 해라.

이윽고 먼 기적 소리. 기차가 들어온다.

현 그림, 할아버님.

고영감 오냐. 일본에 가 거처를 정하걸랑 곧 연락을 혀. 돈도 필요하면 더 보낼 테니께.

현 (어머니를 돌아본다.)

현모 내 걱정 말구 아무쪼록 객지에서 몸 성히 다녀와라.

눈물고인 시선 꼭 손목을 잡아준다. 기차에 오르는 현. 저만치 역 구내에 영순이가 서 있다. 가만히 손 들어주는 현. 영순 돌아서 온다. 이윽고 ㉡ 발차 신호. 천천히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점차 멀어지는 그들. 손을 흔드는 현.

S#54. 기차 안

차창에 앉은 현. 멀어져가는 고향 풍경. 자꾸 뒤돌아본다. 기차가 터널로 들어간다. 어두워지는 주위. 웬일일까? 기차만 가고 현만 남아 있다. 이상하다. 동굴 안에 달랑 남아 꿈결인 양 둘러보는 현.

S#55. 동굴 안(밤)

동굴 속에 앉아 있는 현. 몽롱한 의식 속에 괴로워하다가 펄쩍 눈을 뜬다. 딱, ㉢ 떨어지는 물방울. 아, 역시 동굴 속이라 정신을 가다듬어 내다보는 현.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다. 점점 기력이 쇠진하고 의식이 몽롱해지는 현. 상처 찢시는 다리에 가만히 손을 댔다가 눈앞에 가까이 본다. ㉣ 검붉은 핏자국, 가쁜 숨결. 이윽고 헛소리 하는 현.

“..... 죽는 걸까? 여기서 이대로 죽는 건가? 맥박이 뭘 적마다 피가 흐른다. 몇 시간이나 더 지탱할 수 있을까...... 아니 그놈이 올 텐데...... 그놈은 꼭 오고야 말 것이다.”

메마른 입술. 전신을 스치는 소란. 현, 충신을 잡고 고통에 찢 그리며 가만히 일어난다. 지레 문 어금니 사이로 신음이 새어나 온다. 현, 다리를 끌고 나가 동굴 입구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 마신다. 얼굴을 적시는 빗줄기. 어두운 계곡에 뽀얀 물보라. 저 멀리 마을 쪽에 ㉔ 예광탄 하나가 밤하늘을 긋는다. 흠칫 놀라는 현. 충신을 거머쥐고 겨냥하며 슬금슬금 안으로 든다. 마치 게 한 마리 나오려다 도로 기어들어가는 것 같다. 현, 눈을 지그시 감고 고통을 참는다.

현 놈은 온다...... 꼭 온다...... 나를 죽이러 온다......

문득 먼 포성. 흠칫 귀를 기울이는 현. 계속되는 포성.

현 천둥소리? 아니 저건 포 소리 같은데...... 포 소리...... 포 소리가 분명해.

현의 목소리가 우릉우릉 굴속을 메아리쳐 굴러가며 거기 다시 환청으로 누구의 목소리가 메아리 되어 울리며,

“(오노오노 소노 도꼬로에 에시무) 모두들 각자의 자기 설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개인을 절대적 단위로 하고 무원칙적인 평등과 무제한한 자유를 목적으로 한 서구의 사회 질서는 극도의 혼란을 조장케 되었고 그 문명은 바야흐로 몰락의 과정에 이르게 된 것이며......”

S#56. 일본 제대 강의실

칠판에 커다랗게 팔굉일우(八紘一宇) 휘갈겨 써 놓고 변사조의 강의를 계속하는 동양윤리학 교수 다까라. 멍한 얼굴로 강의를 듣는 현.

다까라 이때야말로 빛은 동방으로부터 첫손 미죽이 쫓기할 때는 당도한 것이다. (오노오노)....., 그것은 존재의 군화원리를 투시한 것이며 겸허한 인간 정신의 가치는(고에 다까라니 우따우모노)....., 소리 드높여 노래하는 것이라. 역사적 대사명....., 팔굉일우 얼마나 장엄한 선언이냐?

장엄한 선언? 비웃듯 되물어보는 현의 표정.

다까라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정신이 바로 이것이다. 미영의 굴레에 억압된 황색민족을 해방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여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야 한다. 이 얼마나 비장하고 장엄한 사명이냐?

S#57. 동굴 안(밤)

눈감은 채 괴로워하는 현.

현 그래서?

S#58. 강의실

다까라 (쪼르르 달려가 흑판에 대일본제국이라고 휘갈겨 쓰고) 따라서 우리 국민 각자는 이 거룩한 대의에 한 목숨 초개 같이 버려 천황 폐하의 황은에 보답해야 하는 것이다. 보라. 들에 노는 축생일지라도 그들 자신을 별함으로써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그들의 한 가닥 뼈마져 인간을 위해 달게 바치고 있는 것이다.

S#59. 동굴 안(밤)

“(따지듯) 달게?”

— 선우휘 원작. 이은성 외 각색, 「불꽃」 —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내면 의식의 흐름을 중심으로 극이 진행되고 있다.
- ② 다양한 효과음이 활용되어 작품의 긴장감이 완화되고 있다.
- ③ 시간의 역전된 흐름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④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통해 인물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 ⑤ 공간의 변화에 의해 현실의 모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나타난 장면 전환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영화의 장면은 연속된 시간이나 공간으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 다른 공간이나 연속성을 벗어난 시간으로 장면이 전환되기도 한다. 서로 다른 공간이나 시간을 연결하는 경우, 두 장면의 연속성을 암시하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이는 주로 선·후행 장면에서 나타나는 상황의 유사성, 선·후행 장면 내의 소재나 형상의 유사성, 선·후행 장면에 포함된 소리의 유사성 등으로 표현된다.

- ① S#54에서 터널로 들어가는 것과 S#55의 동굴 안은 어둠이라는 상황의 유사성을 이용한 장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군.
- ② S#55에서 굴속에서의 현의 목소리와 일본인 교수의 목소리는 메아리라는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S#56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군.
- ③ S#56에서 S#57로의 장면 전환은 교수의 강의에 대해 현이 반문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강의에 대한 반응’이라는 상황의 유사성으로 연결시키고 있군.
- ④ S#57에서 S#58로의 장면 전환은 괴로워하는 현의 신음 소리와 교수의 강의 소리라는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군.
- ⑤ S#58에서 S#59로의 장면 전환은 교수의 말의 일부를 다시 사용하여 ‘달게’라고 반문하는 ‘현’의 말의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군.

45. ㉑ ~ ㉔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은 ‘현’에 대한 ‘고영감’의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
- ② ㉒은 이별의 시간이 되었음을 청각적으로 일깨워주고 있다.
- ③ ㉓은 ‘현’이 자신이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게 하고 있다.
- ④ ㉔은 ‘현’의 부상이 심각한 상태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⑤ ㉔은 자신을 구해줄 사람에 대한 ‘현’의 기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